



성년 후견인 제도란



김낙의
법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일찍이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자식 키우고 일을 하면서 적지 않은 재산을 형성하였으나 몇 년전부터 치매를 앓아 지속적으로 자식들을 아예 알아보지 못하거나 반복적으로 정신이 오락가락 하여 결국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게 된 어머니가 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머니의 건강에는 무심한 채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며 서로 다투기 바쁠 뿐이고 어머니는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경우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고자 도입된 것이 성년 후견인 제도이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능력이 다소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한정후견,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후견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위 사안에서 어머니의 치매가 매우 심하여 생

활에 필요한 정신능력이 없다면 성년후견을, 어느 정도의 정신능력이 있다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을 청구하여야 한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본인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없고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만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한정후견의 경우 본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으나 일정범위의 법률행위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행사할 수 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금치산, 한정치산이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지 이제 불과 1년이 넘어서고 있고 아직 그다지 많은 사례가 집적되어 있지는 않다.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은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이다. 따라서 성년후견의 청구권자들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들은 본인의 행위능력을 덜 제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후견이 개시될 수 있도록 그 유형을 잘 선택하여야 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